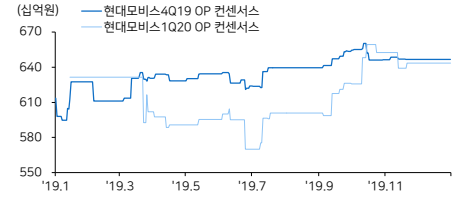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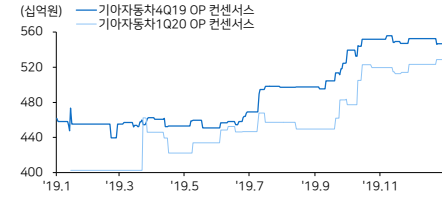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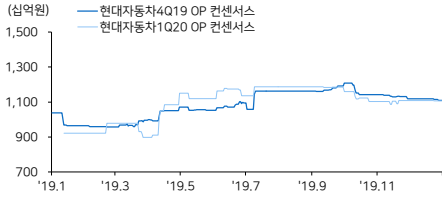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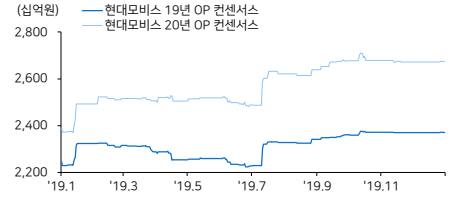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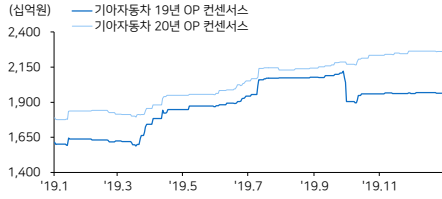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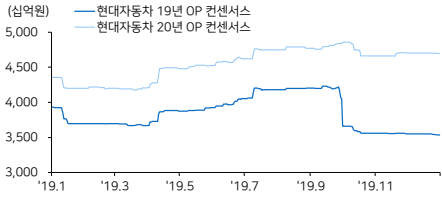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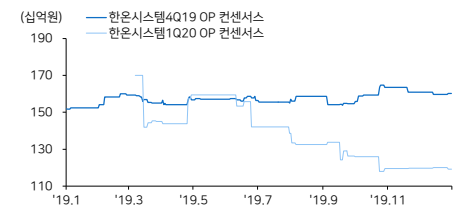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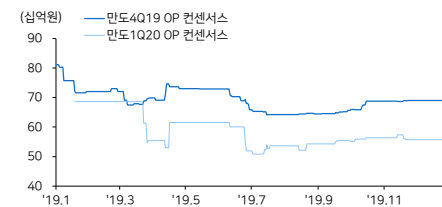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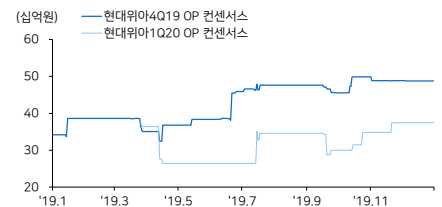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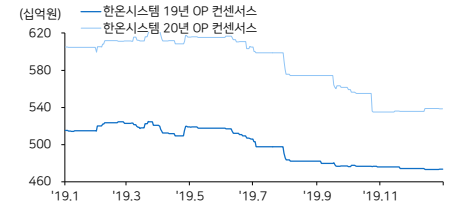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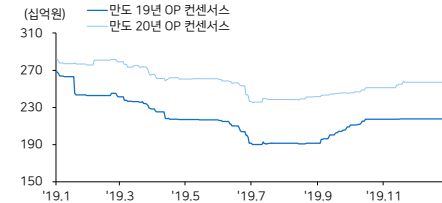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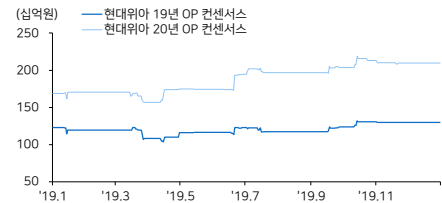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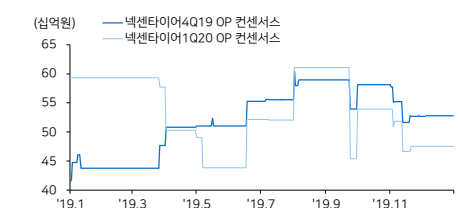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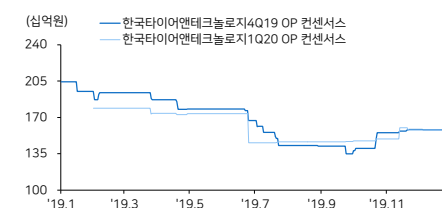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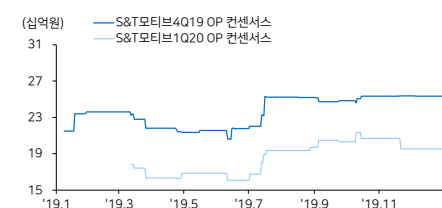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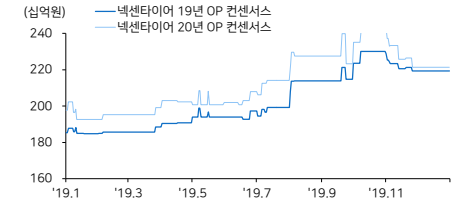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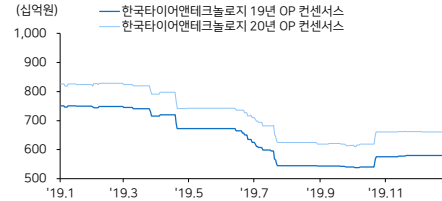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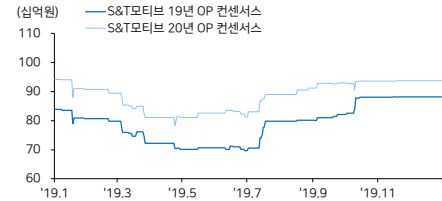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은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**제네시스 GV80, 다음달 미국 데뷔...중국·유럽 진출 박차 (모터그래프)**

제네시스 브랜드가 오는 2월 3일 개막하는 미국 프로미식축구(NFL) 챔피언 결정전 '슈퍼볼(Super bowl)'에서 GV80을 데뷔시킴. 제네시스 사업부 이용우 부사장은 15일 일산 컨센서스에서 열린 GV80 출시 행사장에서 이 같은 계획을 알렸. <https://bit.ly/2RjQB7h>

**더캐피탈그룹, 현대차 지분 2.56% 장내매도 (이데일리)**

미국계 자산운용사 더캐피탈그룹이 현대차 주식 546만6117주(2.56%)를 장내 매도했다고 15일 공시. 이에 따라 더캐피탈그룹의 현대차 지분율은 7.10%에서 4.54%로 감소. 더캐피탈그룹은 현대모비스와 국민연금에 이어 현대차 3대주주. <https://bit.ly/2u2vGxo>

**현대차 배고 모두가 '노사 전쟁' 중인 한국호 (노컷뉴스)**

한국 자동차 업계가 연초부터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음. 만행인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 업계의 노사가 총동.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는 2019년도 임금 협상조차 끝내지 못한. <https://bit.ly/2u1xu9V>

**"제네시스 브랜드 차마져"...중국 지리차, 볼보·벤츠 넘어 애스턴 마틴까지 넘보나 (중앙일보)**

지리차가 경영난에 빠진 영국 럭셔리 메이커 애스턴 마틴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리차의 해외 확장에 다시 한 번 눈길이 쏠리고 있음.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지리차가 애스턴 마틴 지분 확보를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. <https://bit.ly/379gE7y>

**"제네시스 GV80만 기다렸다"...출격 첫날 1.5만대 '폭풍 계약' (한국경제)**

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 GV80이 15일 공식 출시. 상품성은 출시 첫날 곧바로 입증됨. 하루 만에 계약 대수가 1만4000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됨. <https://bit.ly/2uNvY93>

**넥센타이어, 美 전기차 스타트업 '카누'에 타이어 공급 (에너지경제)**

넥센타이어가 미국의 전기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회사 '카누'에 전기차용 타이어를 공급. 카누는 BMW 출신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으로 업계 최초로 '구독 전용 전기차'를 선보이는 등 '전기차 넷플릭스'를 꿈꾸고 있음. <https://bit.ly/3afAS1G>

**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낙찰재 위축..美·中 급감 (뉴시스)**

SNE리서치는 작년 1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0.7GWh로 전년 대비 23.4% 감소했다고 밝힘. 작년 7월까지 증가하다가 8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진 것. 중국과 미국 시장의 감소세가 두드러짐. <https://bit.ly/378048t>

**중국, 2년간 2000억 달러 미국 제품 구매... 미국, 추가관세 철회 (국민일보)**

중국은 미국산 제품(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, 항공기, 농기계, 의료장비, 반도체 등)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과 금융 서비스 등에서 개혁을 하고, 미국은 대중국 추가 관세 철회 및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게 골자. <https://bit.ly/2TnKxNH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항목은 제3자에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항목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는 본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항목은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